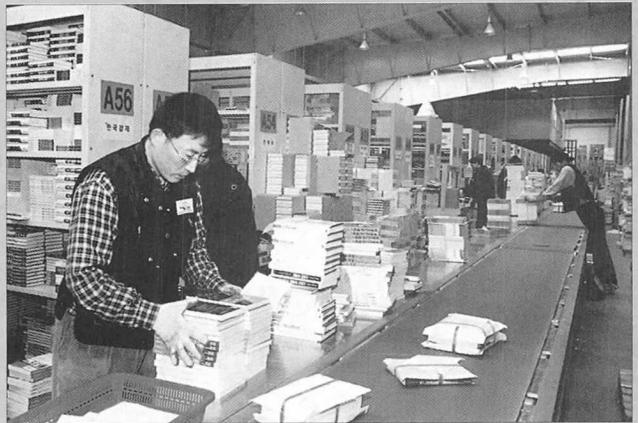


“물류는 제3의 이윤 원천이다”

이두영 | (주)대창외서무역 대표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현대산업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창고·배송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출판계의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물류정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고비용·저효율의 물류구조는 집약화·대량화·자동화·정보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낙원사의 파산으로 배송업계의 고비용·저효율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한 물류업체 직원이 작업하는 모습.

생선초밥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재고관리에 신경 쓸 일이 없다. 창고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예측생산품인 책은 항상 재고를 쌓아 놓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문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상품의 효율적인 이전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비용과 노력(인력), 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기업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3의 이윤 원천인 물류는 오늘날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류는 최근 비즈니스 로지스틱스나 CALS로 발전했으며, SCM을 구축해 관련업체가 정보도 공유하고 유통효율화도 꾀하고 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경쟁사끼리 전략적 제휴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 출판산업의 물류합리화도 앞으로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류창고에서 '유통공장'으로

물류에 대한 욕구가 고도화되면서 창고의 역할도 변했다. 현대화된 유통센터는 물류창고라기보다 '유통공장'이라고 해야 옳다. 생산공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을 표준화·평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기계화가 비교적 쉽지만, 유통센터는 주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절대조건이기 때문에 작업의 파동(작업량의 변동)에 대응해야 하고 배송업무와의 연동성·동기화(同期化)의 확보, 다양한 주문에 대한 오배송 및 결품률 감소 등 물류서비스 향상에 항상 어려움

이 따르게 마련이다.

물류가 지향하는 바는 다품종 소량 다빈도 거래와 즉시배송 요구에 대해, 좀더 저렴한 비용(low cost)으로 신속(speedy)·정확(surely)·안전(safety)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른바 3S 1L로 집약된다.

책이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는 참으로 많다. 특히 직거래율이 높고 중간유통기능은 미약한데다 영세서점이 과다하게 밀집된 우리의 유통구조로는 적재효율이 떨어지고 물류비용과 인력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물류비의 상승은 인건비가 가장 큰 요인이므로 물류 작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이다.

자동화·정보화가 물류구조 개선의 길

대행사의 등장으로 배송이 편리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배송대행은 우리만의 독특한 시스템이고, 배달만큼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독일이나 네델란드가 24시간 내 배달을 자랑하지만 우리보다는 다소 늦는 편이다. 그러나 단순히 주문도서를 주고받는 현재의 배송시스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독일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발주 전에 그 책이 언제쯤 올 것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자신 있게 객주(客注)에 응할 수 있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는데 반해, 발주하면서 재고유무라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실

정이다. 오송률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중복투자와 낭비가 심하고 관리가 극히 부실한 부문이 배송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류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물류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체제는 전혀 갖춰지지 못했다. 최근 낙원사의 파산은 배송업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게 어찌 배송회사만의 책임이라.

현재와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유통구조는 물류합리화를 통해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낙원사의 예에서 경험한 것처럼 배송사의 도산은 물류의 마비를 부르고 결국 유통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신용있는 기업으로 육성, 물량을 집약화·대량화하고 공동화해서 자동화·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물류는 연쇄형이기 때문에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류개선이 '생산부문에 비해 열 배 이상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게다가 출판물류는 상품이 역류하는,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반품과정이 하나 더 있다. 시급하고 절실한 물류합리화를 위해 범출판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